

안양시흥지부를 찾아서

회원들간의 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안양·시흥지부

-추용진-



김 동 환
안양시흥지부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자리잡고 있는 안양·시흥지부(지부장: 김동환)는 양돈회관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됨에 따라 농촌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하나 둘씩 서울로 모여들어 서울의 경계는 넓어지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도시들은 더욱더 도시화되고 발전되어왔다.

이 도시에서 양돈업을 생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도시계획이나 도로 공사나 하는 것들로부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거나 다행히도 계속 경영을 할 수 있어도 인근 주민과의 마찰, 분노처리, 시설 확충 등의 문제들이

산재되어 양돈인들의 고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성도시인 광명, 안산, 안양, 시흥, 군포, 의왕, 과천시의 양돈인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안양·시흥지부가 94년도에 이어 95년도에도 우수지부로 선정되기까지는 이 지역 양돈인들의 신념과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되었을 것이다.

1988년 9월 1일 23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안양시흥지부는 현재 43명의 회원과 지부장, 부지부장, 이사4명, 감사 2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양·시흥지부는 회원들간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계 단합체육대회, 창립 총회때의 단합대회, 연말에 회원의 전 가족이 참가하는 친선의 밤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김동환 지부장은 국내 양돈농가전부가 양돈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지부에서는 지역양돈인을 영입하여 한배를 타고 양돈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흥지부는 회원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을 남겨 주기 위하여 90년 12월에 발족한 (주)축산개발에서 회원모두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축산기자재 및 일부약품

도 공동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다. (주)축산개발은 회원의 80%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료를 공동으로 공급받아 그 이익을 모든 회원에게 돌려주고 협회운영비로도 쓰이고 있다. 또한 회원에 가입이 안된 농가에도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회원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안양·시흥지부는 중소규모의 양돈농가가 많은데 이는 지부 회원들의 지역이 모두 시(市)지역으로 양돈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양돈생산은 불합리할지라도 생산된 돼지고기를 유통하는 것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동환 지부장은 지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양돈협회가 지역에서 양돈하는 사람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면서 회원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인공수정 보급, 약품구매사업 확대, 협동화 사업, 돼지 분뇨 공동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지역이기에 새롭게 양돈을 하는 사람이 없어 신입회원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기존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회원을 영입하고 모임과 단합대회 등을 통해 신기술 교육과 협동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양·시흥지부는 월례회의 등의 모임을 통하여 회원들 상호간에 겪었던 사양, 시설 등의 경영사례들을 발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고 노하우를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의 선진 기술과 시설들이 국내에 많이 보급되었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겪었던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을 교환하면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부회원들이 협회의 일원이 되어 참여함으로써 소속감과 단결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김지부장은 사양관리위주로 실시되었던 교육에서 경영관리와 기계화·신기법을 알리는데 더욱 비중을 두어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지부회원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분뇨처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양돈농가를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2~3개 농장에서 분뇨를 수거하여 지역별로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부회원들이 내 농장일이 아니지만 같이 동참하였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김동환지부장은 명칭뿐인 지부장이 아니라 발로 뛰면서 지부사업을 하는 지부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김지부장은 정부에서 모든 자금지원과 전반적인 규제문제를 생산자 단체와 충분히 협의후에 결정하여야 하며, 중앙회에서는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마련과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하여달라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안양·
시흥지부는
중소규모의
양돈농가가 많은데
이는 지부 회원들의
지역이 모두 시(市)
지역으로 양돈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양돈생산은
불합리할지라도
생산된 돼지고기를
유통하는 것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